



보도시점 2025. 8. 11.(월) 06:00
8. 11.(월) 석간

배포 2025. 8. 10.(일) 14:00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만톤 공급(대여)

- 정부양곡 3만톤을 공매(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최초 공급
- ’25년산 신곡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25년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최근 벼가 부족하다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8월 말까지 정부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정곡 기준 3만톤이며, 이는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가치의 물량을 ’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대여)이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8.14일(목)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물량이 배정될 계획이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8월29일(금)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25년산 신곡을 '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반납 물량은 '25년 7월 평균 산지쌀값, '25년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공급하는 3만 톤만큼, '25년산 생산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년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